



새로운 질병유입을 막기 위한 10가지 방법

영 국에서 현재 구제역이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캐나다 지역을 방문중에 있는 존가드가 구제역재발 방지대책을 숙고하여 제안하였다.

노재욱 수의사 역
한국양돈컨설팅그룹



▲대만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1. 육류에 대한 최악의 불신

2001년 현재 소비자들은 육류에 대하여 극도의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광우병 공포를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육류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구제역 발생 이후 3주일간에 채식비율이 적어도 12%가 증가하였고 인조고기가 가격에 상관없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들은 돈육이 - 모든 육류가 - 위생적이며 적절한 방법으로 사육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고객들을 안심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들이 식탁위의 다양한 육류요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



상황을 종결시켜야 한다.

2 교훈

구제역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는데 나는 이들중 몇가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가 음식물 찌꺼기에 관한 것으로 오랫동안 생각해 오고 있던 문제이다. 나는 그들을 좋아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사업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행위를 중단해야 할 때가 되었다.

내가 제안하는 것들이 새롭고 엄격하기까지 하여 내가 알고 있는, 또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축산업을 하는 우리는 생존을 걸고 싸우고 있는 중임을 상기해 보라! 충고를 받아들여야만 하며 - 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천해야 하리라고 본다.

3 대책

1. 구제역 뿐만 아니라 돈콜레라와 그 외 기타 질병들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육류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2. “물래 은밀한 방법으로” 오염되는 기회를 줄여야 한다. 수화물로 가지고 올 수 없는 식품 금지품목을 공시하고 여행자들에게 여행객들의 가방을 열어 검사할 것임을 알리고, 영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지점에는 탐지견을

2001년 현재 소비자들은 육류에 대하여 극도의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광우병 공포를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육류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구제역 발생 이후 3주일간애 채식비율이 적어도 12%가 증가하였고 인조고기가 가격에 상관없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들은 돈육이 - 모든 육류가 - 위생적이며 적절한 방법으로 사육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고객들을 안심시켜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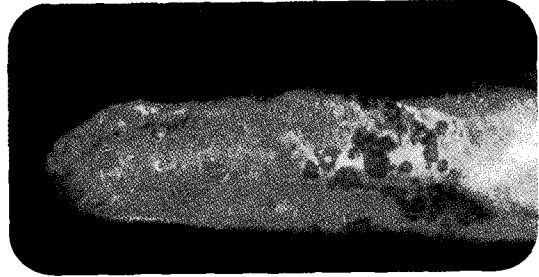
배치하여 “냄새를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약 금지된 식품이 발견되면 소유주에게 무거운 벌금을 물리거나 입국을 거절해야 한다. 선택권을 주도록 한다. 전세계 여행사에게 영국에 보내지는 소화물은 탐색견에 의하여 검사되고 만약 금지된 식품이 탐색되면 소유주가 소화물을 열어 식품이 제거될 때까지 영치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잔반을 포함하여 끓이는 소독 공정을 필요로 하는 농장내 자가사료공장은 적절히 보상을 해주고 즉시 금지시켜야 한다.

4. 모든 도축장과 가축시장에는 자동소독 시설을 갖추고 (커다란 자동세차기처럼 생긴) 공인된 살마이러스성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차의 아래쪽과 바퀴 안쪽 그리고 바퀴살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표면을 씻어내고 소독해야 한다. 차량의 내부는 소독시설에 들어 오기 전에 감독하에 세



<구제역 임상증상>



척되고 소독되어야 한다. 어떤 도축장에서는 단계에 따라 여러 개의 소독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5. 출하시 가축수송 업자는 새로 소독한 신발과 새로 세탁한 작업복을 착용을 하였다 는 소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허가되어야 한다.

6. 모든 음식물과 후보돈군을 포함한 동물의 출입은 사전에 허가된 농장 경계내의 출하장소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7.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로든 도태되는 가축을 처리할 때에는 농장내의 지정된 출하장소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사료차, 운송 회사의 트럭이나 도축업자의 짐차는 이유를 막론하고 농장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법률

로 제한해야 한다.

8. 도로차단 등에 관한 필요한 허가계획과 통지 그리고 개조에 필요한 재정정보를 해결 수 있는 권한을 지방공무원에게 위임해 주어야 한다.

9. 가축을 입식시 농장내에 3일간의 격리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 시설의 장소 설정과 설계는 수의관련 기관의 조언을 받아서 실시한다.

10.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모든 종류의 식육에 대하여 훨씬 더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각의 식육에는 그것을 사육한 농장과 동물의 출처를 언제든지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입증이 안되는 상품명이나 보증문구를 붙일 것이 아니라 출처를 알리는 표시를 하여 소비



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이번 사태 이후에는 모든 수입육에 대하여 법적으로 수출국을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육가공품에 아무리 적은 양이 들어가더라도 표시하도록 하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생산방법과 사용된 첨가물에 관한 목록을 판매시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지역 도축장/가공공장을 재건설하고 지역 생산품의 판매전략을 짤 때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4. 지역 가축시장

지역 가축시장은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가야 한다.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동물들을 대지에 풀어주면서 자기 짝과 더불어 생식을 시작한 이래로 동물들은 질병을 전파하는 주요 매개체 역할을 해오고 있다.

농장을 떠난 모든 동물들은 떠나 곧장 도축장으로 보내어져 기록과 등록 절차를 거치든지, 혹은 상호계약에 의하여 다른 농장의 구매자에게 직접 이동되든지(이때도 기록과 등록절차를 거친다), 대리자인 상인에게 팔리어 구매자의 농장으로 직접 수송되어야 한다. 가축을 한자리에 모아 세척하거나 모아서 대기 관리하는 시설은 금지되어야 한다.

앞으로 미래의 양돈업자는 이야기 하거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가축시장내를 돌아다니지 않아야 한다. 지역가축시장은 확실히 시대에 뒤떨어진 산물이다.

5. 식품안전세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문제로 돌아가 보자. 물론 이런 제안을 실천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런데, 누구의 돈을 쓰게 되는가? 물론 소비자의 돈이다! 가공업자와 슈퍼마켓은 이 모든 비용들이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식품안전세등의 제도를 만들어 전액을 이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확실한 장치를 해야 한다.

이 모든 업무를 관장할 식품부(Ministry of Food)를 신설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이 농무부(Agriculture)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어 버렸으므로 농무부에 이 일을 맡겨서는 안된다.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생산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데에 적절하게 사용되리라고 믿기만 한다면, 국민들은 식품안전을 위해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호의를 불러 일으키는 세금이라! - 얼마나 역설적인가! 어쨌거나 사람들은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에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9조 파운드라고들 하는데, 그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식품안전 업무를 순조롭게 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국민 1인당 160파운드가 든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방역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그 구멍을 신속하게 메꾸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JNGadd@aol.com). **양돈**

〈Pig Farming 2001. 4, 존 가드〉